



# 濁流清論

제45호 2016년 10월 24일(월)

발행인: 이순일 / 편집: 편집위원회

< 알려 드립니다 >

### ◇ 수시로 원고 접수합니다

탁류청론은 아주대학교 교수님들의 의견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교수님들의 원고는 교수회 이메일 (jyj263@ajou.ac.kr)로 보내주십시오. 탁류청론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면 위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목 차

<u>더불어 푸른 솔밭에서</u> 중앙도서관 1층 리모델링 사업	1
<u>특집</u> 도서관과 책의 미래	4
<u>소통과 담론</u> 무고한 사람에게 화를 내고 있지는 않은가? -분노 조절의 어려움-	9
<u>교수들의 건강칼럼</u> 비문증	11
<u>소식</u> - 교수회 제79차 월례 대의원회 개최 - 교수회 차기 의장 및 감사 선거	12

### 더불어 푸른 솔밭에서

## 중앙도서관 1층 리모델링 사업

건축학과 신 동 우(중앙도서관장)

이 글은 ‘중앙도서관 1층 리모델링 사업’의 추진에 참여하고 있는 한 축인 중앙도서관의 입장에서 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내용을 공유해 이 사업에 대한 구성원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 의도에서 작성되었으며, 유관 부서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개인적인 견해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 중앙도서관과 리모델링 사업의 개요

중앙도서관은 1983.12. 준공된 우리 대학 캠퍼스의 주요 건축물로서, 종합관과 팔달관을 제외하고는 교내에서 가장 큰 규모(연면적 4,026평, 지하1층, 지상 4층)의 건물이다. 뿐만 아니라 대학본부, 이공계열, 인문·사회계열, 학생회관, 생활관, 운동장, 정문 등으로 둘러 쌓인 캠퍼스 Core Zone에 위치하고 있어서 입지 측면에서도 중요한 건물이 아닐 수 없다. 준공 당시 건물의 용도는 행정(대학본부) 및 일반열람(학습) 공간을 위해 설계되었으나, 준공 이후 구조 보강을 거쳐 서가식 정보검색 공간과 보존서고까지 갖추게 되었다.

‘중앙도서관 1층 리모델링 사업’은 캠퍼스의 중심적인 위치에 위치한 도서관의 기능을 기존의 ‘서가식 정보검색’과 ‘일반 열람석’ 학습공간에서 ‘디지털화된 정보검색’과 ‘창의적인 개방형’ 학습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우선 2·3·4층에 분산된 ‘일반열람석’ 공간의 일부를 1층 공간(870평)과 맞바꿔 재배치해 북카페식 학습과 토론학습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사업이다.

## 사업계획의 목표

아주대학교는 매우 건전한 사학으로 발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타 대학에 비해 구성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외부인들에게 내세울 수 있는 대표적인 공간이 많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학문의 뚜렷한 융·복합화 추세 속에서도, 다양한 학문 분야가 어우러져 공동학습의 기회를 가지기 어렵고, 외부인(특히 입학고 고려 중인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교 투어 필수 코스인 도서관 방문 시 그 시설이 타 경쟁대학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학생들이 가고 싶고, 모이고 싶고, 학교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개선해 보자는 의도에서 사업 계획이 진행되었다.

## 대학도서관의 변화

학술정보는 진리 탐구를 핵심 가치로 삼는 대학의 교육과 연구의 중심적 기능을 가진다. 이러한 학술정보를 접하는 통로로서 도서관은 당연히 대학기능의 중심이 되어, 어느 대학 캠퍼스에서도 중심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전과 사회의 급격한 정보화에 따라 도서관 자체의 성격도 크게 변하여, 학술정보의 검색은 굳이 도서관이 아니어도 접근이 가능해지고 있으며,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은 정보검색보다도 학습공간 활용의 비중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때 요구되는 학습공간은 지금과 같이 개인학습 위주의 열람 공간 보다는 창의적 학습이 가능한 토론학습 공간이나 자유로운 북카페 형태의 개방된 학습공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지난 봄에 기획처가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설문조사 결과가 그것을 말해 주고 있다. (도서관에서 확충이 필요한 공간으로 매점·휴게공간(29.6%), 북카페(28.8%), 토론학습실(25.1%)이 제시되어, 총 83.5%가 도서관의 개방형 학습공간을 희망하였음.)

이렇게 도서관의 기능과 학생들의 선호 학습공간이 변하는 흐름 속에서, 학교가 이를 수용하지 못하면 학

생들은 결국 다른 방법으로 이를 해결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것이 밤 늦은 새벽 시간까지 학교 앞의 커피전문점들이 학생들로 혼잡한 이유이기도 하다.

## 대안 검토와 선택을 위한 고려사항

학교는 도서관에 이러한 학습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물리적인 건축 측면에서 ‘신축’ 또는 ‘증축’, 그리고 기존 도서관의 ‘리모델링’을 검토한 바 있다. 그러나 입지 측면에서는 대학의 모든 구성원들의 접근성이 가장 좋은 현재 중앙도서관 또는 인근 부지로 한정하여 검토하였다.

이들 대안의 비교와 검토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었던 점들은 (1) 대학의 현실적인 재정 상황, (2) 캠퍼스의 장기적인 마스터플랜과의 부합성, 그리고 (3) 향후 대학도서관 변화의 방향 등이다.

먼저 대학의 재정 측면에서 본다면 ‘신축’이라는 대안이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는 본부의 판단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 물론 언젠가는 중앙도서관도 신축해야 할 시점이 오겠지만 4,026평의 중앙도서관 건물을 대체 신축하는 것은 25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어 가까운 장래에는 불가능에 가깝다.

물론 부분적인 ‘증축’이나 ‘소규모 신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증축’이 어려운 이유는 1983년 준공 당시의 건축설계 기준과 비교해 2016년 현재의 기준이 크게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당시 지진에 대한 내진구조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설계·시공된 도서관 건물을 증축할 경우, 1983년 이후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강화된 내진구조설계 기준을 만족시켜야 하므로 증축공사와는 별도로 기존 건물 전체의 구조보강에 막대한 비용이 추가적으로 소요되므로 비현실적인 대안이 되고 만다. (물론 이것은 기존의 구조체가 불안정하다는 얘기와는 별개의 사안임.)

또 ‘신축’의 경우를 보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수준의 예산(설비교체 및 가구비용 제외)으로 신축할 수 있는

건물의 규모는 실제 400~500평에 불과하다. 이러한 소규모 건축물을 현재의 중앙도서관 인근에 신축한다는 것은 캠퍼스 마스터플랜 뿐만 아니라 대학도서관의 미래 변화와 동떨어진 단발성 사업이 되어 캠퍼스 중심 부지(Core Zone) 활용에 부정적일 가능성이 크다.

두 번째로 캠퍼스 마스터플랜(2005년 수립) 측면에서 보면, 도서관 건물(4,026평)은 정보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그리고 또 이공계열, 인문사회계열, 의학계열, 주거지역, 연구시설 등 교내 시설간 연계의 중심 건물로서 미래에 존치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특히 마스터플랜은 도서관 주변의 외부공간을 캠퍼스 중심 지역의 대표적인 'public open space'로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 건물의 신축이나 증축은 장기적인 캠퍼스 발전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하므로 체계적인 계획 하에서 엄격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세 번째로 대학도서관의 미래 변화 측면에서 보면, 현재의 '서가식 정보검색'과 '일반 열람석 학습' 공간 위주의 대학도서관은 디지털화된 정보검색과 개방된 창의적 학습공간으로 변화되어 갈 것이다. 물론 이러한 변화의 속도에 따라 대응 시기의 조절은 필요하겠지만, 서가 공간의 필요성은 축소되고 창의적 학습공간의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볼 때 현재의 도서관 건물은 대학의 중심지역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창의적인 학습공간으로 탈바꿈(리모델링)할 수 있는 충분한 면적과 구조적으로 충분한 잔여 수명을 가진 건축물이다.

요약하자면 재정상황, 캠퍼스 마스터플랜, 도서관의 변화라는 세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존 중앙도서관 건물을 대상으로 한 창의적 학습공간의 확충을 위한 대안으로는 결국 도서관 건물 전체에 대한 단계적인 리모델링과 향후 첨단화된 디지털 정보검색을 위한 '디지털라이브러리'의 신축으로 가닥을 잡는 것이 자연스럽다. 다만 이 경우 현재 중앙도서관 주변

의 'public open space'를 보존하기 위해, '디지털라이브러리 신축'과 필요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 입체적인 지하공간 개발도 향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우선 새로운 학습공간의 대안으로 '중앙도서관의 리모델링'이라는 방향이 결정되었고, 현재 논의 중인 수준의 예산에서 가능한 범위로 2·3·4층으로 분산된 개별 학습공간인 일반열람석 공간의 일부를 1층으로 이동해 학생들이 선호하는 북카페로 리모델링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 사업의 성격과 제약사항

재정적인 제약만 해소된다면 나는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에 반대할 명분을 찾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이 리모델링 사업이 물리적으로 '공간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도서관 공간의 '콘텐츠를 변화의 흐름에 맞도록 재구성'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재학 시절 등·하교 때마다 비교적 단조롭게 느꼈던 학교 캠퍼스의 중심 공간을 자유로움이 살아 숨쉴 수 있는 구성원들의 문화로 채우고, 졸업 후에도 변하는 계절마다 추억에 남아 있는 시간과 행사들이 이어질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 시키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재학생들과 구성원들에게 이와 같은 새로운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가장 큰 제약사항은 아마도 소요 재원의 확보일 것이다. 물론 그 외에 넘어야 할 수많은 기술적인 제약사항도 있다. 그러나 극복해야 할 더 근본적인 제약사항은 어려운 사업에 대한 학내 구성원들의 이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복잡한 불확실성을 극복해 가며 이 사업을 성공시키는 일은 구성원의 지지가 없이 일부의 찬성만으로 추진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글이 학내 구성원들의 이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 특집

## 도서관과 책의 미래

## 도서관 리모델링에 부쳐

전자공학과 양희석

“미디어는 메시지다”라는 상식을 나는 교과서에서 배웠다. 사실 교과서를 들먹이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잘 파악하고 있는 명제다. 지금은 유명을 달리한 어느 가수는 ‘LP 시대 사람들은 물리적으로 많아 없어지는 매체의 특성상 음악을 소중히 했었다’고 기억을 더듬으며 스트리밍, 무한공유시대 값 싸진 음악 소비 풍토에 일침을 가했었고, 개인적으로도 비슷한 이야기를 선배들이나 교수님들로부터 많이 전해 들었다. 물론 도서관이라는 미디어도 예외는 아니었는데, 인터넷이나 전자도서관이 없던 시절 원하는 연구결과를 찾기 위해 도서관에서 구독하는 저널을 뒤져서 필요한 부분을 복사해다 읽으며 연구를 했다는 ‘무용담’들이 그것이다. 이 무용담들은 클릭 한번에 거의 모든 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 우리 세대에게 비단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그 자체로 어떤 메시지였다.

도서관이 대학의 무엇을 기능하고 상징하는지는 지속적으로 변해왔다. 저 무용담 시절의 도서관은 인류 지식의 지평을 넓히는 최전선에서의 정보 교환이 실제적으로 이뤄지고, 또한 그렇게 생산된 지식이 유통되는 심장과 같은 존재였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책상 위에 놓인 데스크탑이나 손바닥 위 스마트 기기로서 모든 일을 대신하고 있고, 학생들 역시 도서관 열람실보다는 교문 밖 카페에서 그 지식을 열람하고 습득한다. 비유컨대 아마도 이제 도서관은 대학의 심장보다는 얼굴 정도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나 싶다. 아닌 게 아니라 국내외 유명 대학의 이름과

도서관을 함께 검색하면 쉽게 읽을 수 있는 기사나 이야기들은 ‘OO대의 불이 꺼지지 않는 도서관’이나 ‘XX대 도서관 대여 인기 도서가...’ 류의 대학 세대 논평 일색이다.

근자에 신축된 서울대학교의 관정도서관이나 연세대학교 언더우드기념도서관이 정숙한 분위기의 열람실 일색이 아닌 그룹스터디나 세미나 공간이 많이 확보된 형태로 설계된 이면에는 아마도 이러한 시대적 변화가 있을 것이다. 재학생뿐 아니라 타교, 타국의 학생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하여 학문적, 문화적 교류를 시도하는 유럽 대학 도서관들의 시도도 눈여겨볼 만하다. 하지만 우리 대학 도서관이 이런 시대적 변화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고, 어떻게 이번 리모델링이 그것에 부응해야 하는지 분에 넘치는 혼수를 둘 생각은 없다. 충분한 사례 조사와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깊은 고민을 통해 최선의 방안이 도출될 것이라 믿는다.

다만 이번 도서관 리모델링을 바라보는 학생들의 시선에 대한 의미있는 관찰을 전하고 싶다. 아주대학교 웹 커뮤니티 상에서 학생들이 이번 리모델링을 보는 관점은 사실 도서관 기능 자체의 개선을 기대하기보다는, ‘앞으로 학교가 얼마나 투자하는지 지켜보겠다’는 쪽에 가깝다. 명문대학들의 첫 음절의 나열로 구성된 그 마법의 주문 같은 대학 서열상에서 우리 학교가 얼마만큼 ‘올라가려고’ 노력하는지 한번 보겠다는 것이다. 당장 졸업 이후에

취업 전쟁에서 ‘생존’해야 하는 학생들에게 이런 시선을 거두고 대학 본래의 고매한 뜻에 눈을 돌려주길 바라는 것이 얼마나 현실적인지는 모르겠다. 보기 좋고 안락한 환경보다 거기서 무엇을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단순한 사실. 그러니까 인터넷이 없던 시절에도 도서관에서 복사해온 논문을 뒤적였던 선배 연구자들의 원시적인 노력들이 세상을 바꾸었다는, 그

상투적이고 고루한 메시지가 학생들에게 잘 전달되게 하는 것은 온전히 우리 교수들의 몫이라 생각한다.

## 우리 도서관이 학생들이 밤새 놀 수 있는 넓은 공간이 된다면

화학과 김유권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도서관에 거의 가지 않는다. 참고 문헌을 검색하고 다운 받는 것은 인터넷을 통해서 연구실에서 가능하고, 만약 라이선스가 없는 문헌은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친절할 도서관 직원의 도움으로 하루 이틀 안에 찾아서 인쇄본 또는 전자 문서로 받아볼 수 있다. (교수 입장에서 보면 더 많은 저널, 검색 엔진이 제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간절하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학생들이 어떻게 활용하는지 잘 알지 못한다. 그렇다고 해서 도서관에 관심이 없거나, 대학에서 도서관의 역할을 과소평가하거나 관심이 없는 것은 절대 아니다. 도서관은 대학에서 제일 중요한 공간이라고 생각한다.

인터넷이 발달하고 모바일 통신이 보편화된 요즘, 도서관은 단지 정보를 보관하고 전달하는 기능만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고시나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학생들의 공부방 정도의 역할에 머물러서도 안 될 것이다. *우리 사회의 미래를 건강한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싹트고, 서로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필요한 자료가 생각났을 때 바로 찾아서, 단지 피상적이었던 아이디어가 구체적이고 혁신적인 성과물로 발전하여 우리 학생들이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인*

*재로 거듭나고, “풍요롭고” 행복한 미래를 이뤄나가는 데 꼭 필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은 ‘와자지껄’하기도 하고, ‘과자마’를 입고 돌아다녀도 좋을 만큼 편안한 도서관의 모습을 상상해 본다.

도서관에 들어서면 카페가 눈에 들어오고 맛있는 커피향이 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라운지가 구석구석에 널려 있어서, 이번 텀프로젝트를 어떤 것을 할지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어제 미팅에서 만난 이성에 대한 얘기도 하고, 학교 앞에 새로 생긴 맛집 얘기도 하는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수다를 떠느라 여념이 없다. 그러다 지치면, 다시 풀지 못한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가까이 있는 단말기에서 자료를 찾거나 바로 위층에 있는 조용한 열람실에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기도 한다. 그러다 배고프면, 지하에 푸드코트에서 맛있는 것을 골라 먹을 수도 있고, 집중하고 있는 문제를 밤늦게까지 몰두하고 싶으면, 도서관에서 밤을 새워가며 공부를 하거나 토론을 할 수도 있다. 도서관에서 밤새 공부하고 아침에 찬 공기를 가르며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커피 한 잔 하는 쾌감을 느껴보는 것은 어떨까?

대부분의 학부생들이 학교에 오면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 빈 강의실을 찾아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주저없이 찾아가서 하루 종일이라도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 그런 도서관이 있다면, 빨리 학교 가고 싶을 것 같고, 내가 나온 대학이 자랑스러울 것 같다. 고등학생들이 우리 대학 견학을 왔는데, 대학생들로 넘쳐나는 살아있는 도서관의 모습을 본다면, 우리 대학이 정말 가고 싶은 대학 1순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물론, 우리 학교의 멋진 캠퍼스 곳곳의 벚나무 밑에 있는 벤치도 좋지만, 바람 불거나 비 오는 날이면, 아늑한 실내 공간이 생각나기도 하지 않는가? 그렇게 만족스런 분위기에서, 생각하고 토론하는 4년의 대학 생활을 보낸 학생이라면, 진학 또는 취업 후에, 연구실에서, 사회에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데 꼭 필요한 그 무언가를 채워 줄 수 있을 것 같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해서 4차 산업혁명의 파도가 몰아치고 있는데, 우리 도서관의 모습은 아직은 엄격하고, 시간제한도 있고, 지키고 관리하는 데 치중하느라, 자유로운 사색과 탐구의 공간을 제공하는 데 좀 엄한 모습이 있지는 않나 생각해 본다. 약간의 리모델링도 필요할 것 같고, 규칙도 확 풀어야 할 것 같다. 학생들의 공공시설을 잘 이용하는 성숙된 자세도 필요할 것 같다. 실제로 도서관 공간도 확 커져야 할 것 같다. (학생 수에 비해 공간도 많이 부족하다고 들었다.) 결국 부족한 재원을 어디서 마련하느냐 하는 문제도 생기는데, 대학이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이 아닌 만큼, 훌륭한 인재를 양성해서 사회에 기여하는 대학의 진짜 역할을 지자체나 지역사회에 잘 설득하여 건강한 투자를 유치하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도 안 될 것 같다.

## 도서관 팬이 되기까지

불어불문학과 송근영

도서관에 대한 글을 쓰기로 했기 때문에 하는 말은 아니지만, 내게 도서관은 매우 매력적인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대학을 다닐 때까지는 이 공간에 특별한 의미를 느끼지 못했던 것 같다. 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고 공부도 하고 가끔 영화를, 음악 자료를 신청해서 감상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때까지 도서관은 내게 자료 열람과 공부를 위한 곳이라는 사전적 의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것 같다. 그랬던 내가 도서관에 애착을 가지게 된 것은 아마도 프랑스 유학 시절의 몇 가지 경험 때문일 것이다.

파리에서 공부하는 동안 접해 본 여러 도서관 중 특히 기억에 남는 세 곳이 있다. 그 하나는 프랑스 국립 도서관이다. 이 도서관은 몇 개의 부지에 시설이 나뉘어 있는데, 나는 그 중 가장 규모가 큰 프랑수아 미테

랑 도서관을 자주 이용했다. 직각으로 펼쳐진 책을 상징한다는 네 개의 건물과 미니멀리즘 분위기로 유명한 이곳은 프랑스 최대 도서관이다. 열람 공간은 두 층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레드자르탱’으로 불리는 아래층은 인터뷰를 통해 이용 자격을 인정받아야 유료로 입장할 수 있는 곳으로, 주로 박사과정 이상 연구자들의 공간이다. 가져온 짐을 물품보관소에서 제공하는 투명한 가방에 옮겨 넣은 다음 몇 개의 육중한 문을 여닫으며 아래층의 열람 공간으로 향하는 길은 매번 꽤 번거롭다고 생각했지만, 아주 가끔씩은 그 공간에 다다르기 위해 무언가 의식을 치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했다. 장서 보유량, 쾌적하면서도 장엄한 분위기, 예약 서적 자동 운반 시스템 등 자랑거리가 많겠지만 나는 이 도서관의 ‘당당함’이 특히 인상적이었다. 하루는

공부 중 눈을 쉬려고 잠시 책상에 엎드려 있는데 직원이 다가와 상냥한 말투로 피곤하냐고 묻는 것이었다. 아무래도 처음 보는 직원의 단순한 배려인 것 같지만은 않았지만 정중한 질문의 의도가 얼른 파악되지 않아 바보 같은 표정으로 “조금 피곤하네요.”라고 말한 것은 나의 실수였다. 무안하게도 “피곤할 때 쉬기 위한 휴게실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라는 대답이 돌아온 것이다. 미소 띤 얼굴이었지만 한마디로 연구 분위기를 흐리지 말아 달라는 말이었다. 어떤 날은 나와 같은 상황을 만난 프랑스인이 직원의 지적에 불쾌한 내색을 하다 둘 사이에 언쟁이 벌어진 적도 있다. 또한 이곳은 책 보호를 위해 복사도 이용자가 직접 할 수 없고 복사비도 비싸다. 책상 위에 물병을 두면 책을 훼손할 수 있으니 바닥에 내려놓으라고 주의를 주기도 한다. 아무튼 과장을 보태자면 책이 ‘갑’이라는 듯한 메시지를 심심치 않게 느낄 수 있는 곳이었다. ‘사람보다 책’, ‘사람보다 연구 분위기’라는 이 자신 넘치는 당당함이 처음에는 어딘가 권위적으로 느껴져 불편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묘하게도 그런 분위기가 웬지 좋아졌다. 도서관이 무정물로서의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성깔’이 있는 하나의 인격체처럼 느껴졌다고나 할까? 혹은 자존심을 가진 하나의 주체처럼 느껴졌다고 할 수도 있겠다.

두 번째로 떠오르는 곳은 퐁피두센터의 도서관이다. 이곳은 무료 공공도서관인데,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종종 들르곤 했다. 이용 자격 제한이 없어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만큼 좀 어수선했 때도 있지만 크게 신경 쓰일 정도는 아니다. 그런데 한 번은 누가 봐도 노숙자인 사람이 미디어테크 공간에서 TV 시청 중인 것을 보게 되었다. 이 일은 당시의 나에게는 놀랍다면 놀라운 경험이었다.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다는 공공성의 원칙에 따라, 비록 냄새가 날지언정 노숙자라는 이유로 입장을 막지는 않았던 것이다. 다른 사람들처럼 도서관 입구의 금속탐지기만 통과하면 되었

을 것이다. 이 상황을 불평하는 이용객도 없었다. 틀에 박힌 연상이기는 하지만 ‘한국에서라면 어땠을까?’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올랐다. 악취가 난다고 이용자들 불만을 제기하지는 않았을까? 혹은 그 이전에 이미 입장 자체가 힘들지는 않았을까? 그런 상황이 생기면 어떨지 지금도 문득 궁금하다. 혹시 이와 관련된 수칙이 있을까?

세 번째로 생각나는 곳은 동네마다 볼 수 있는 시립도서관으로, 파리 곳곳에 70여 개가 있고 한 번 가입하면 어디든 이용할 수 있다. 약간의 돈을 내면 CD, DVD도 빌릴 수 있다. 공부를 위해 이곳에 간 적은 거의 없지만 한국에서 찾기 어려운 CD를 대출해서 하나씩 들어보는 것은 설레는 일이었고, 무엇보다 모든 시민이 지근거리에서 일상적으로 책, 음악, 영화 등의 다양한 자료를 매우 쉽게, 그것도 거의 무료로 접할 수 있다는 것이 근사했다.

이 몇몇 도서관을 통해 자존심, 공공성, 친근성 등 소소한 ‘도서관 정신’을 비로소 직접 체험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이 프랑스의 도서관이 더 훌륭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전에 한국에서 도서관에 특별한 느낌을 갖지 못했던 것은 그저 나의 관심 혹은 계기의 부재 때문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도서관을 보는 눈길이 달라진 후 한국에 돌아와서 보니 우리의 도서관 역시 훌륭하다. 프랑스 국립도서관 정도는 아닐지라도 국립중앙도서관이 있고, ‘작은도서관’처럼 일상 속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도 정말 많이 늘었다. 이제 파리에서와는 반대로 동네 도서관을 제일 많이 이용하게 된 나는 주말이면 집 앞에 있는 깔끔하고 아담한 도서관을 종종 찾는다. 책도 물론 빌리지만 사실은 영 능률이 오르지 않는 집 대신 도서관에서 집중해서 일이나 공부를 하려고 갈 때가 훨씬 많다. 그런데 한국의 동네 도서관을 통해 미처 몰랐던 또 다른 매력을 느끼게 되었다. 내가 가는 도서관은 한적한 곳에 있지만 열람실은 거의 늘 딱 찬다.

초등학생부터 흰머리 가득한 어르신까지 이용자도 다양하다. 나는 아주 잠깐씩이지만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살짝 ‘엿보는’ 것을 좋아한다. 열중해 있는 모습을 보면 작은 호기심이 생기는 것이다. 사람도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보는 책도 자연스레 함께 눈에 들어온다. 먹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는데 읽는 책을 보아도 그 사람에 대해 조금은 상상할 수 있다. 정숙을 지켜야 하는 곳이고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굳이 말을 걸지 않지만, 말하지 않고도 책상 위의 책만으로 자신의 정체성 약간을 내보일 수 있다는 것은 종종 새삼스럽게 느껴진다. 별건 아니지만 나는 이런 관찰이 은근히 즐겁다. 시장에 가면 사람 사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듯, 도서관에서도 요즘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것 같다. 나만 해도 그렇지만 사실 순수한 독서를 위해 도서관을 찾는 이는 많지 않아 보인다. 안타깝게도 초등학생 대부분은 문제집을 풀고 있고, 많은 젊은이들은 시험공부용 인터넷 강의를 보고 있으며, 장년층 역시 대개 일을 하거나 수험서를 본다. 다들 각자의 처지를 지키기 위해 (혹은 벗어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가득한 것이다. 드

물게 역사책들을 펼쳐 놓고 정독 중인 할아버지, 여행 책을 쌓아 놓은 아주머니, 소설이나 만화를 읽는 젊은이라도 보이면 마냥 부럽기도 하다. 몇 번 다니다 보니까 같은 자리에만 앉은 사람도 보이는데 그럴 때면 아는 사람을 보는 듯 반갑기도 하다. 진지하게 앉아 있는 사람들 속에서 작은 세상을 보는 것 같고, 모종의 인간적 에너지를 얻고 돌아온다는 느낌도 자주 든다.

전자책이 종이책을 대체하게 된다면 미래에는 물리적 도서관이 필요 없어질 수 있다는 말도 들리지만, 개인적으로 그리 단시일 안에 도서관이 사라져 버릴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또 이미 많은 도서관이 새 시대 적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기도 하다. 다만 종이책이 완전히 사라져 도서관에서도 컴퓨터나 리더기로 독서하게 되는 날이 온다면, 그래서 책상 위에 있는 책으로 내 앞사람에 대해 상상해 보는 작은 재미가 사라져 버리게 된다면 꽤 안타깝겠다고 아쉬워하는 것은 바쁜 이 시대에는 어울리지 않는 너무 한가로운 생각일까?

## 도서관으로의 여행

사회학과 호정화

도서관은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거대한 플랫폼이다. 도서관에서 책 표지를 여는 순간 책 안의 고유한 시공간으로의 여행이 시작된다. 여행은 수업준비와 연구를 위한 것인 때도 있고, 익숙한 일상으로부터의 일탈인 때도 있다. 도서관에서의 여행은 돈도 들지 않고, 가고 싶을 때, 원하는 시간만큼 다녀올 수 있으며, 여행지를 집으로 대출해갈 수도 있다. 일상이 바빠질수록, 그래서 집을 꾸러 떠나는 여행이 힘들어질수록 도서관으로 떠나는 여행은 더욱 소중한 것이다.

내 작은 여행은 주로 중앙도서관 1층의 신간서가에 이루어진다. 아침저녁 출퇴근길에, 또는 나른한 오후에 성호관 앞 작은 정원을 가로질러 도서관으로 향한다. 갓 세상에 나온 책들 사이를 서성이며 새로 마주칠 세상을 고른다. 새 책들을 한가득 대출해 나올 때마다 마치 가보고 싶었던 곳, 또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시공간을 받아 들고 오는 듯한 마음이 된다. 나와 같이 서가에서 책을 고르는 학생들을 볼 때마다 그들의 여행은 어디로 향한 것일까 궁금하고 그들의 여행이 깊고 멋진 것이 되기를 바란다.

도서관이 변화된다고 한다. 도서관으로 여행을 떠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척 기쁜 소식이다. 새로운 도서관에 바라는 점은 우리들의 여행이 좀 더 편안하고 풍부하고 깊은 것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도서관에서 책을 편하게 읽을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한다. 물론 6인용 책상과 의자가 있고 그 앞에서 집중을 요하는 일을 할 수 있지만, 혼자 떠나는 여행자들을 위한 좀 더 아늑한 공간이 있으면 한다. 학생으로 교수로 여러 대학의 도서관을 경험했다. 그 중 내가 박사학위를 받은 학교의 도서관은 큰 호수를 바라보고 있었다. 도서관 열람실에는 예의 6인용 책상과 의자들과 함께 편안한 안락의자들이 호수를 바라보며 놓여있었다. 사람들은 책상에서 집중하며 일을 하다가 책을 들고 안락의자에서 짧지만 조용한 여행을 떠나기도 했다. 서가에 꽂힌 장서의 수,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방대함, 친절하고 빠른 서비스와 최신식 컴퓨터 등등 도서관의 장점은 여러 가지였다. 하지만 호수를 향하여 놓여 있던 도서관의 편안한 의자들과 그곳에서 했던 여행들은 내게 반짝이는 기억으로 남아있다. 우리 학교 중앙도서관에도 편안한 의자를 열람실의 조용한 곳에 놓는 것은 어떨까? 새로운 세계로 침잠할 수 있는 동굴과 같은 곳은 어떨까? 학생들로 가득한 공간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에 미안해지고 이상스레 눈치가 보이는 교수들을 위한 작은 캐롤은 너무 큰 욕심

일까?

홀로 여행을 떠나는 내게 안락의자가 편안한 여행이 될 수 있는 시작점이라면, 학생들은 그 젊음만큼 다양한 시작점을 원하는 것 같다. 커피를 마시며 친구와 읽은 책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오디오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도서관 건물이 더 예뻐지면 좋겠어요, 만화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수업을 듣는 16학년 새내기들에게 도서관에 바라는 점이 무엇인지 물어보았더니 나온 대답이다. 도서관은 죽은 공간이 아니라 책의 수만큼 다양한 시공간이 살아 숨 쉬는 곳이고, 그 끝없이 넓고 그 세계를 탐험하기 위해서 홀로 그리고 친구와 같이 나눌 공간이 필요한 것이다.

일상을 떠나 편안한 여행을 떠날 수 있는 도서관, 상상하지도 못했던 곳으로 여행을 떠날 수 있는 도서관을 꿈꾼다. 딱딱한 책상 앞에 고립된 섬처럼 앉아 정보를 외우는 공간이 아니라 자유로운 여행을 시작하고 여러 방식으로 새로운 시공간을 만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한다. 새로운 도서관은 이 모든 여행이 시작되는 아름다운 곳이 되기 바란다.



## 무고한 사람에게 화를 내고 있지는 않은가?

-분노 조절의 어려움-

심리학과 김은하

최근 '햇김'에 저지른 범죄(일명 '묻지마' 범죄)가 연일 뉴스에서 보도되고 아동이나 사회적 약자를 학대하거나 괴롭히는 등의 사건들이 알려지면서 '분노조절장애'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분노조절장애의 원인은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학적 원인 등 다양하지만, 치열한 경쟁과 스트레스, 가난은 대물림되고 부모

의 도움 없이는 성공하기 힘들다는 불평등의식과 열패감, 사회가 정의롭지 않다는 생각 등을 분노조절장애의 핵심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특히 최근의 몇몇 연구에 따르면, 많은 한국 사람들이 한국사회가 '부조리하고 비도덕적'이라고 생각하고, '공공성이 실종'된 한국사회에 대해 분노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의 분노조절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화병과 전위공격성이라는 두 개념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먼저 화병은 오랜 세월동안 억울하고 분한 감정을 억압한 결과로 발생하는 정신 질환으로, 화(火)와 같은 양태로 표출되기 때문에 분노 증후군(anger syndrome)으로도 불리운다. 화병의 대표적인 원인은 가족 관련 스트레스, 경제적 스트레스, 직장 관련 스트레스(예. 과도한 업무, 명예퇴직/감원에 대한 압박감, 상사와의 갈등), 노후에 대한 고민 등이 있으며, 화병에 취약한 사람들의 성격 특징으로는 소심함, 다혈질, 완벽주의, 강한 책임감, 전통적 남성관과 여성관, 낮은 자존감 등이 있다. 또한 소극적인 문제 대처, 회피, 참기, 감정 억제, '내가 피해자'라는 생각, 남 탓하기 등도 화병의 원인이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화병은 '참고 인내하는 것이 미덕', '침잠고 조용한 게 미덕', '다수를 위해 개인의 감정 표현은 자제하는 것이 좋음'과 같은 한국의 문화와도 관련이 있다. 많은 한국 사람들은 감정이 억압된 생활을 하다 화병 증상을 경험하게 되고, 이것이 어느 한계점에 달하게 되면, 이유 없는 '묻지마'식 공격성으로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위계질서가 강한 한국 문화에서는 자신보다 나이 혹은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화가 났지만, 그 화를 표현하지 못하고 억누르다가 나이가 어리거나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 대신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분노를 느끼는 대상에게 직접적으로 분노를 표현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전위공격성이라고 한다. 전위공격성은 평소 좌절, 슬픔, 분노와 같은 부정적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억지로 눌러 담은 사람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데, 부정적 감정은 억제할수록 오히려 증폭되고, 관련 없는 타인의 별 뜻 없는 행동에 공격적으로 반응하는 형태로 표출될 수 있다. 즉,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는 것이 화병과 전위공격성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감정 표현을 억제하는 것이 늘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관련 연구들에 따르면, 단순히 정서표현을 적게 하는 것이 역기능적인 것은 아니며 어떤 상황에서는 강렬한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감정을 해소하기보다는 오히려 더욱 강한 감정을 초래하여 심각한 심리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결과들도 보고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이 확인되면서 최근 심리학 연구에서는 감정 표현이나 억제와 같은 이분법적 구분보다는 감정 표현을 억제하는 이유(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가?)에 따라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한국문화적 맥락에서는 감정 표현을 하지 않는 이유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감정 표현 후에 타인에게 이해받지 못하거나 거부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상대방이 곤란해하거나 그 사람과 불편한 관계가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전자를 자기방어적 양가성, 후자를 관계관여적 양가성이라고 하는데, 자기방어적 양가성은 우울, 불안, 전위공격성과 관련이 있는 반면에 관계관여적 양가성은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화를 내면 상대방으로부터 미움을 받거나 이해를 받지 못할 거라 생각하여 화를 억제하는 것은 전위공격적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반면에 상대방과의 관계가 나빠지거나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이 싫어서 화를 표현하지 않는 것은 전위공격적 행동을 초래하지 않는다.

최근에는 뉴스를 보는 것이 두려울 때가 있다. 오늘은 또 누가 분노를 참지 못해 무고한 약자에게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을까? 물론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 상관없는 먼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우리도 화병이나 전위공격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혹시 누군가에게 실망하거나 화가 났는데 참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보고 만약 그렇다면 왜 참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만약 참는 이유가 상대방으로부터 미움을 받거나 이해받지 못해서라면 참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자칫하면 무고한 사람에게 화를 낼

수 있음을 기억해야겠다. 또한 내 주위 사람들의 감정을 들어주고 타당화해 주는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그 사람이 나로부터 이해받지 못하는 것이 두려워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다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의 전위공격적 행동을 격려하고 있는 셈이기 때문이다.

교수들의 건강칼럼

비문증

안과학교실 이기황

안과에 내원하는 환자분들 중 ‘눈에 모기나 파리가 날아다닌다’, ‘검은 점이 많이 떠 다닌다’ 등 이른바 날 파리증 또는 비문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다. 상당히 흔한 증상으로 보통은 40대 이후에 많이 생기지만 근시가 있는 경우 20대에도 나타날 수 있다. 보통은 눈을 감으면 사라지나 때로는 눈을 감아도 나타나는 것처럼 느낄 수 있고, 눈을 움직일 때 따라 움직이면서 보인다. 특히 맑은 하늘이나 하얀 벽을 보았을 때 더 뚜렷하게 보이는 특징이 있다.

비문증 자체는 시력에 영향을 주지 않으나 환자분들은 큰 불편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먼저 비문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리체의 특징과 역할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유리체는 수정체와 망막 사이에 위치한 투명한 매체로서 눈알의 모양을 유지해 주고 완충역할을 한다. 유리체 용적은 평균 4mL 정도이며 99%이상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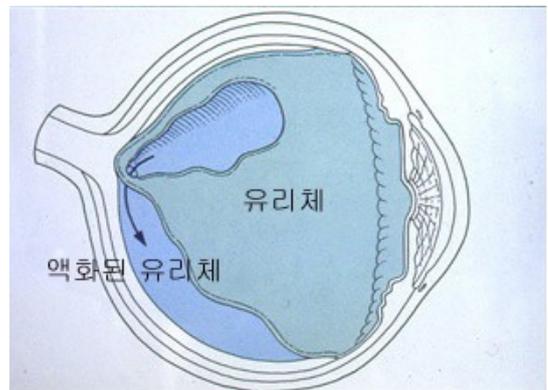
수분이고 히알루론산과 아교섬유 2형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리체는 망막과 부착되어 있으며 특히 유리체 기저부, 시신경유두, 중심와, 큰망막 혈관에 더 강하게 부착되어 있다.

비문증의 발생 원인

노화, 근시 또는 염증으로 인해 유리체가 변성되어 발생한 유리체 액화와 뒤유리체박리가 비문증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유리체 액화가 생기면 액화현상 주변으로 유리체섬유가 농축되고 액화된 유리체는 유리체와 망막 사이로 들어가 뒤유리체박리를 일으킨다. 이때 여러 모양의 유리체 혼탁이 발생되며 이러한 유리체 혼탁으로 인해 빛이 통과하다가 망막 위에 그림자를 만들면, 파리나 모기 같은 곤충이나 점, 작은 동그라미, 아지랑이 등과 같은 형태로 보이게 된다.



▶ 유리체박리에 의해 발생한 섬유성 혼탁고리



▶ 뒤유리체박리



재미있게도 백내장 수술 후 비문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수술 전에는 백내장으로 혼탁해진 수정체를 통해 빛이 잘 통과 못하므로 비문증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았다가 수술 후 시야가 깨끗해지고 빛이 잘 투과되면서 더 선명하게 비문증을 느끼는 것이다.

비문증과 동반해서 눈 속에서 번갯불이 번쩍이는 증상이 동반되기도 한다. 부분적으로 유리체가 박리되었을 경우 눈을 움직일 때 유리체가 출렁이며 망막과 유리체가 유착된 부위에서 유리체가 견인되고 망막이 자극을 받아 시야 내에서 번쩍이는 불빛을 느끼게 되는데 이를 광시증이라 한다.

### 비문증의 치료

비문증은 동반질환이 없으면 치료가 필요 없다. 시일이 경과하면서 혼탁이 줄어들거나 환자가 날파리증에 적응할 때까지 심리적으로 불안하지 않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유리체가 박리될 때 망막과 유리체의 유착이 강한 곳이 있으면 망막이 찢어지면서 망막열공이 발생한다. 이때 망막혈관이 손상되면 유리체출혈이 생길 수 있다. 망막열공은 망막박리의 원인이 되기 쉬워서 레이저치료가 필요하다. 유리체출혈이 가벼운 경우 출혈이 자연적으로 흡수될 때까지 기다리며 출혈이 심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까지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날파리증이 발생했을 경우 망막열공이나 망막박리가 동반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안저검사가 꼭 필요하다. 또한 안저검사 후에도 시야에 문제가 생기거나 비문증이나 광시증이 심해지는 경우(물체의 숫자가 많아지거나 번쩍이는 번갯불이 보인다면) 망막박리, 유리체 출혈 등의 초기증상을 의심하고 주기적으로 안과전문의에게 검사를 받아야 한다.

소식

## 교수회 소식

### 교수회 제79차 월례 대의원회 개최

지난 10월 18일 화요일 오후 4시 30분에 율곡관 제1회의실에서 교수회 제79차 월례 대의원회가 개최되었으며 대의원회에서 보고 및 논의된 내용이 담긴 회의록은 교수님들께 전자우편으로 발송해 드릴 예정입니다.

### 교수회 차기 의장 및 감사 선거

아주대학교 교수회 의장 및 감사의 임기가 2017년 2월 28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신입 의장 및 감사 선출을 위한 투표가 진행됩니다. 투표 기간은 10월 31일(월) 오전 10시부터 11월 14일(월) 오후 5시(전자 투표는 11월 4일까지 5일 동안 참여 가능)까지이며 투표 장소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추후 공지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바쁘시더라도 투표에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